

Japan Weekly Digest

2011. 9. 10. ~ 9. 16.

☐ 금주의 이슈

- 노다 총리, 정견발표
- 노다 총리, 부흥증세안에서 소비세 증세는 제외

☐ 일본기업전략

- 한·일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동개발
- 야마자키마작, 미국에서 공작기계 역수입

☐ 경제산업성 동향

- 경제산업상에 에다노 유키오 前관방장관 기용
- 일본정부 국제원자력기관에 보고서 추가 제출
- 마키노 경제산업성 부대신 미국출장 결과발표

☐ 보고서 리뷰

- 『일본의 실질구매력 저하~소득수지 증가에 의한 경상수지흑자 확보』 제일생명경제연구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정견 발표

- 부흥경제를 최우선, 금년 중으로 재생전략 마련
 - 노다 요시히코 신임총리는 9월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소신 표명 연설. 동일본 대지진재해의 복구·부흥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조기편성을 추진
 -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신성장전략을 강화하는 일본 재생전략을 금년 내에 마련.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교섭 참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임을 표명
-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가일층의 관계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부흥증세안, 노다 총리가 소비세증세는 제외 지시

-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9월 16일 동일본 대지진재해 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한 임시 증세안을 마련. 최종안은 세출삭감과 세외수입의 증대로 증세액이 당초 상정한 13.2조엔에서 11조~12조 엔으로 감소. 핵심인 소득세에 대한 정율 증세는 명칭을 부흥공헌특별소득세(가칭)로 하는 안을 제안
 - 정부세제조사회는 증세안으로, ①소득세와 법인세, ②소득세와 법인세, 담배세 등 개별 간접세, ③소비세 등 3개 안을 제시
-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기간 10년, 소득세, 개인주민세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세제조사회에 지시
 - 상기 ①,②,③안과 관련하여 노다 총리는 소비세율을 향후 1년 6개월에 걸쳐 3%인상하는 ③안은 제외시킴.
 -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실효세율(약40%)을 5%인하한 후에 3년간 정률증세를 실시. 그만큼 감세폭은 줄어들게 됨
- 이 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3조엔의 부흥비에 기초연금의 손실분에 대한 국고부담 지출을 합한 총 16.2조 엔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중 세출삭감과 세외수입 5조엔을 차감한 11.2조엔을 증세로 충당하게 됨

◆ 일본기업전략

□ 한일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동개발

- NTT 도코모, 후지쓰 등 일본의 통신관련 기업들이 한국 삼성전자와 차세대휴대전화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폰(고기능휴대전화)용 핵심 반도체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2012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감
- 개발대상은 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제어용 반도체로서 한·일 연합으로 반도체개발 주도권을 확보, 세계시장 개척을 겨냥
- 통신제어반도체는 무선이나 신호를 제어하는 휴대전화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며 동 반도체 시장에서는 현재 3세대휴대전화로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쿼르콤이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스마트폰에서는 80%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이대로라면 차세대 휴대전화기 분야에서도 쿼르콤의 의존도가 높아져 단말기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일 각사가 연합하기로 한 것임
- 신규 회사는 본사를 일본에 두고 자본금은 300억엔 정도로 보고 있음. 도모코가 과반을 출자하고 나머지를 삼성, 후지쓰 외에 NEC, 파나소닉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가 출자하는 방향으로 조정. 신규 회사는 반도체의 개발, 설계, 판촉활동에 특화하며 제조는 외부에 위탁할 전망

□ 일본 공작기계메이커 야마자키마작,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부터 역수입, 국내생산은 중지

- 일본의 공작기계 메이커 야마자키마작은 10월부터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중소형 공작기계를 일본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함. 엔高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일부 기종을 역수입하여 수익을 개선시키기 위함. 앞으로 환율동향에 따라 수입대상 기종을 확대, 세계 지역별 생산 최적화 추진, 환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
- 미국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선반, 머시닝센터 등 합계 28개 기종 가운데 중소형 선반 4개 기종을 월 15~20대를 수입, 자동차부품 등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저가 보급기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판매. 미국공장에서는 현지의 수요증가에 더하여 일본으로의 수출개시에 대응, 내년 봄에 걸쳐 월 생산능력을 현재 90대에서 130대로 증가시킬 계획
- 수입대상 기종의 일부는 일본생산을 중지하고 미국내 생산으로 일원화함. 일본산 제품과 같이 판매하는 미국산 기종에 대해서는 일본내 판매가격을 미국 시장판매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할 방침
- 한편, 최근 엔高로 생산거점을 아시아 등지에 이전한 일본기업들 사이에서도 일본산 공작기계보다 20%~50%싼 중국이나 대만기업 제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감과 세외수입 5조엔을 차감한 11.2조엔을 증세로 충당하게 됨

◆ 경제산업성 동향

□ 경제산업상에 에다노 유키오 前관방장관 기용

- 노다 총리는 최근 대지진 재해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임하게 된 하치로 경제산업상 후임으로 前관방장관을 지냈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씨를 임명
- 에다노 신임 경제산업상은 前 정권에서 간사장과 간사장 대리, 관방장관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노다 총리와 같이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신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초선의원으로서 호소노(細野豪志)환경·원발사고 담당상과도 같이 일해 옴
- 다만, 에다노 신임 경제산업상은 탈오자와 노선의 기수로 알려진 인물인데다 원발사고 대응과 관련 비판을 받아온 간정권의 주요 각료이었던 점과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 및 간정권의 혼란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기용을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음

□ 일본정부 국제원자력기관에 추가보고서 제출

- 일본 원자력대책본부는 동경전력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각료회의에 사고의 발생과 진전 상황, 원자력 피해에 대한 대응, 현시점까지 얻어진 교훈 등에 관하여 추가 보고
- 이중 특히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와 사용이 끝난 연료 풀의 안정적인 냉각을 달성하는 등 사고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의 1단계를 종료, 현재 제2단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 마키노 경제산업성 부대신 미국출장 결과 발표

- 9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에너지·교통성 장관회의에 일본 경제산업성 마키노 부대신이 참석
- 일본은 ① APEC전체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목표 추구, ② 미·일 정상회담 합의한 「에너지 스마트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진전(클린에너지 기술을 APEC지역에 확대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지향한 이니셔티브로서 2010년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설립에 합의) ③ 일본이 제안한 저탄소모델 프로젝트 발전 등을 제안

◆ 보고서 리뷰

『일본의 실질구매력 저하~소득수지 증가에 의한 경상수지흑자 확보』

제일생명경제연구소, 9월12일

□ 일본의 투자입국화

- 그동안 엄청난 무역수지흑자로 무역마찰을 유발시켰던 일본의 무역수지는 앞으로 축소되는 대신, 소득수지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소득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투자수익에 이어 직접투자 수익도 증가하고 있어 2000년대에 들어와 소득수지 증가세가 두드러짐
- 그 배경에는 신흥국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소득수지가 무역수지를 상회함에 따라 투자입국으로 불리게 됨
- 이같이 경상수지의 주역이 무역수지에서 소득수지로 교체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을 우려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된 채 무역수지만이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것임
-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하여, 수입은 동일본 대지진재해 이후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따른 원전 감축으로 발전용 에너지나 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수요증가에 따른 자원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엔高의 수입억제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액이 증가, 여기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입증가도 가세할 전망
- 수출은 엔高기조의 정착으로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소득수지가 경상수지의 중심

-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증가에 더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이익률 개선에 따른 배당금의 환류 증가로 소득수지의 흑자폭은 확대. 그러나 국민 일인당 구매력 측면에서는 자원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한 교역손실 확대로 인하여 국민일인당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의 감소 → 가처분소득 감소 → 내수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내수확대를 위한 구매력 유지가 과제

- 따라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에 더하여 소득수지 증가가 필수 불가결함. 미국의 장기적인 금융완화정책이나 유럽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근 마련된 「엔高대응긴급패키지」 등 엔高대책의 효과는 불투명
- 오히려 수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엔高를 활용하여 자원권익의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실질구매력 증가에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일본의 실질구매력 저하~소득수지 증가에 의한 경상수지흑자 확보』

제일생명경제연구소, 9월12일

*출처: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141967/>

- (2) 『일본재생 공간경제학의 시점』 경제산업연구소, 9월13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fujita/05.html>

- (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닛세이기초연구소, 9월13일

*출처: http://www.nli-research.co.jp/report/gerontology_journal/2011/gero11_002.pdf

- (4) 『스포츠기본법 제정』 일본 참의원, 9월14일

*출처: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1pdf/20110905049.pdf

- (5) 『거래은행의 효율성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사회종합연구소, 9월15일

*출처: http://www.esri.go.jp/jp/archive/e_dis/e_dis280/e_dis273.html

- (6) 『일본의 경제·물가정세와 금융정책』 일본은행, 9월15일

*출처: http://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1/kol10914a.htm